

“컵대회서 거액 날리자 정규리그서도 승부조작”

불법베팅 가담자의 폭로

1억 이상 받은 B구단 뒷바라지 무승부 이 한 경기로 검은돈 20억 날아가 컵대회 손실 만회 위해 리그에 마수 패배 원인제공 선수에 온갖 협박도

컵 대회에 이어 정규리그에서도 승부조작이 이뤄진 사례가 포착됐다. 불법 베팅 사이트를 통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이들은 컵 대회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로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3일 후 예정된 정규리그까지 승부조작의 마수를 뻗었다. 이들이 컵 대회에서 입은 손실액만 무려 20억원 이상의 거액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준다. 스포츠동아에 27일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승부조작이 이뤄졌던 경기에 직접 돈을 건 베팅터 A씨였다. 통상 불법 베팅 사이트의 경우 사전에 허락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 이들이 따로 공유하

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다. A씨도 그 중 1명이었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극도로 꺼려했다. A씨가 밝힌 승부조작의 진원지는 B구단이였다. 올 시즌 ○월○일 B구단은 지방의 C구단과 컵 대회 경기를 했다. A씨에 따르면 사전에 B구단 몇몇 선수들이 포섭됐다. 1억원 이상의 돈이 B구단 선수들에게 흘러갔다. 조건은 당연히 B구단의 패배였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의 무승부로 끝났다. 돈을 받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선수가 있었다. 이 경기 무승부로 무려 20억 원대의 검은 돈이 날아갔다. A씨도 1000만원 상당의 큰 돈을 잃었다. 당연히 돈을 받은 선수들에게 협박이 이뤄졌다. 이들은 컵 대회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사흘 뒤 B구단과 D구단의 정규리그 경기에도 또 한 번 돈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가 빛나갔다. 돈을 받은 선수들은 자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

만 이런 저런 변수가 작용했다. 2경기 연속 게임을 지는 데 실패했다. 컵 대회 때 손실액이 20억 원이니 리그 경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잃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A씨는 “우리는 어느 팀이 지는 지 경기 전에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는 팀에 걸어서 돈을 따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선수들을 포섭하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선수들에게 온갖 협박이 자행 된다”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002

전 대표팀 공격수도 승부조작 직접 가담

대표팀서 70경기 이상 치른 엘리트 선수 상무시절 돈 받고 동료 포섭 시도 소문 조폭과 주고받은 계약서 봤다는 사람도

최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전 국가대표 김동현(27·상무) 외에 국가대표 공격수가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아 진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당수 축구 인물은 소문의 당사자로 현재 수도권 구단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A를 지목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 이 선수의 소속 팀 역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소문에 불과하다. 정확히 말하면 A는 현 국가대표는 아니다. 6월 3일(세르비아)과 7일(가나) 평가전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A는 U-20부터 올림픽을 거쳐 국가대표팀까지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각급 대표팀에서 뛴 경기를 다 합치면 70개 임이 넘는다. 올 초 대표팀에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언제든 테크닉을 입을 수 있는 멤버다. 일반적으로 국가대표 선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커리어다. 소문의 정황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A는 작년까지 광주상무에서 뛰며 몇 차례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수 출신이라 혼자서 승부조작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뒤 동료들을 포섭해 동참하자고 여러 차례 제의했다. 축구 관계자 B씨는 “한 번은 7000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대로 승부조작에 성공하지 못해 협박을 받자 동료들에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 달라며 읍소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퍼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A와 같은 대표급들이 이미지에 금이 가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조직폭력배들도 잘 안다. 그래서 이런 선수를 상대할 때는 협박용으로 계약서를 쓰는 데 A와 조직폭력배가 주고받은 계약서를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 역시 “얼마 전 검찰에 소환됐던 김동현과 A가 광주상무 시절 승부조작의 중심에 서 있었다. 광주상무 출신 선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축구 스타 팬 사인회에 참석한 기성용(왼쪽)과 차두리가 팬들에게 사인을 하고 있다.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트위터 @K1sonecut

시민구단 선수 4명 체포 영장

브로커에 돈받아 구속된 P “이들에 돈 건넸다”

27일 오전 K리그 시민구단 A구단 선수 4명이 창원지검에서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여부는 48시간 이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프로 선수 출신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구단 소속 P가 승부조작 대가로 건넨 ‘검은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선수들이다. 공교롭게도 전 포지션별로 한 명씩 있고, 이들은 1군에서 중종 뛰며 팬들에게도 꽤 알려져 있다. P는 지난 달 초 열린 포항과의 리그 컵 대회 예선 경기를 앞두고 이들 4명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을 살펴보자. 당시 경기에서 A구단은 포항에 0-3으로 패했다. 4명 모두 선발 출격했고, 이 중 한 명은 후반 중반 퇴장을 당했다. P는 아예 출전 명단에 없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P는 승부조작을 동료들에 의뢰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경기를 직접 관전했던 한 축구인은 “이상하지만 차 A 구단은 정상 플레이가 아니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검찰은 P를 구속한 당일(26일) A구단에 연락을 취했다. 공표 선수 혐의점이 있는 선수들을 추가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엔 출두한 4명은 클럽하우스를 떠나기 직전까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체포가 이뤄졌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연루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정현 기자

독버섯 처럼 번지는 반칙...환부를 도려내라

김중환 그라운드 옛보기

2008년 K3 리그에서 벌어진 국내 축구선수들과 중국 사기 도박꾼들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터졌다.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와 브로커 등 23명을 적발했다. 그 이후 축구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더 큰 폭탄이 터졌다.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K리그에서 승부조작이 발각된 것이다. 창원지검검찰청 특수부에 따르면, K리그 선수들을 매수한 스포츠복권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K리그 소속 선수 2명이 구속됐다. 국내에 합법적인 스포츠복표업체는 스포츠토토 한 곳 뿐이다. 국내의 14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이다. 그리고 1인당 한번에 10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신고 건수가 2007년 40건에서 2010년 7951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불법사이트가 날뛰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교수

필자는 며칠 전 축구세미나 때문에 마카오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K리그 단일 경기의 베팅 리스트였다. 충격이었다. 국내에선 단일경기를 공식적으로 베팅하는 방식은 없다. 현지 교포에 의하면 단일경기에 수십억을 베팅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연맹은 승부조작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올 시즌 개막 전 선수와 구단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선수교육과 함께 ‘불법 베팅이 적발될 경우 벌금 5,000만원과 연구제명 조치에 처한다’는 각서를 K리그 선수와 구단 직원에게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있었다. 스포츠는 승부에 대해 거짓이 없고, 보고, 듣고, 따라하고, 열광하는 외적인 표현으로서, 누구나 참여와 관람을 통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 프로스포츠란 페어플레이 및 공정한 판정과 함께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끼리 멋지게 경쟁하는 것이다. 프로선수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프로축구시장이 발각 뒤집혔다. 협회나 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여 관련자 모두를 영구추방 해야 한다. 썩은 환부는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 정답이다.

K리그 12R 관전포인트 28일(토)

포항 vs 대구 오후 7시 포항스타디움 제주MBC 상대전적 12승8무5패 (홈 기준)	포항 신형민-김재성-황진성 황금 M F 총동원령. 객관적 전력은 포항의 우세. 그러나 대구FC도 11R에서 FC 서울을 꺾은 기세 이어갈 태세여서 만만찮아.
전남 vs 울산 오후 7시 광안체육구장 17승19무22패	지동원이 살아나니 전남도 신바람 내며 최근 리그 3연승. 지동원이 자신의 생일날 2경기 연속 골 터뜨릴까. 상승세 울산도 고공점프 헤딩슛의 달인 김신욱을 믿는다.
상주 vs 강원 오후 7시 상주시민운동장	강원의 리그 첫 승은 언제쯤. 상주 최근 리그 2연승 달리고 있는 반면 강원은 최근 리그 3연패. 강원, 올 시즌 원정성적은 1무7패로 더 참담. 상주의 우세에 한 표.
부산 vs 광주 오후 7시 부산아시아드 CJ헬로비전 부산, CMB광주, 디원TV, TB S교통방송	부산, 최근에 저분 게 언제였더라? 11경기 연속 무패(8승3무) 달리고 있어. 광주는 어수선한 팀 분위기 빨리 추스르고 정상적으로 그라운드에 나서게 관계.

29일(일)

대전 vs 전북 오후 3시 대전월드컵경기장 CMB대전, 디원TV, JTV전주 16승13무14패	전북, 11경기 25득점의 막강화력. 최근 원정 3경기에서도 10득점. 대전전 5연승. 최근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혼수상태인 대전이 전북의 창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인천 vs 수원 오후 3시 인천월드컵경기장 KBS N, MBC SPOR TS+, NIB남인천 2승5무12패	수원, 인천 원정 통산 10경기에서 5승5무로 단 한 번도 진 적 없어. 천적 상대로 최근 부진에서 탈출할 계획.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 염기훈 발끝에 기대를 건다.
성남 vs 서울 오후 5시 탄천종합운동장 TBS교통방송 37승37무27패	9위(서울)와 14위(성남)의 대결이라고 알리지 마시라. 마형 리더십으로 주목받은 양 팀 사령탑 최용수(서울), 신태용(성남)의 대결로 큰 관심.
경남 vs 제주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 4승0무3패	경남은 최근 3연패, 제주는 최근 원정 2경기 1득점.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 하락세인 팀 분위기가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양보할 수 없는 한편 승부.

이청용 귀국 “승부조작 말도 안되는 일”



국가대표팀 평가전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한 이청용(23·사진·볼턴)이 2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승부조작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청용은 자신이 K리그에서 뛰는 동안 승부를 조작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상주상무 김동현 출전명단서 제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김동현(27·사진·상주상무)이 당분간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주는 28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FC와의 K리그 12라운드 경기 출전 명단에서 빠졌다.